

## (주)한승종합건설 태안한승美메이드아파트 현장

### 믿음이 있는 현장! 무재해 현장!

지난 여름날 내내 우리의 걸을 지켜 주었던 것은 차츰 그 자취를 감추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에 나뭇잎 색깔마저 변하고, 가지에 붙어 있던 이파리까지 힘겨워 보이는 계절! 장롱 깊숙이 있던 두툼한 옷을 꺼낸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이에 따라 그속에 있는 것이 변해가는데, 변함없이 무재해 시공에 한창인 곳이 있다.

경기도 화성 태안지구에서 무재해 소장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가는 “태안한승美메이드 아파트 현장(김수년 소장)”이 오늘 찾은 곳이다. (주)한승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당 현장에서는 무재해가 계속되고 있었고, 향후 계속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무재해를 이어간다는 각오로 뚝뚝 뚫었다.

#### 이유있는 무재해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현장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현장의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는 안전경영을 설정한 김수년 소장에게는 특별한 과거가 있다. 지금의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게 만든 안전에 관한 스승과 고품질의 안전시공을 할 수 있게 한 기술 스승이 건설 인생을 시작하면서 커다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병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할 당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하고, 현장에 못 하나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현장을 강조하며, 이



▲ 김수년 소장

## 건설안전리포트

러한 환경에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서중하 중령과,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열정이 대단했고, 신입사원 당시 하나 하나 배우는 재미를 갖게 한 정중순 이사가 있어, 인정 받는 건설인



으로 지난 20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장의 총책임자인 소장의 업무를 담당한 지난 6개 현장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만 봐도 그의 20년 건설 역사가 보이는 듯 하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일까? 오늘의 무재해 소장! 무재해 현장이 있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지금도 김수년 소장은 과거에 배운 노트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 당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 다시 이러한 것은 김수년 소장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되었고, 김수년 소장이 과거의 서중하 중령과 정중순 이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주)한승종합건설에서는 김수년 소장 과 함께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근로자 스스로

#### 안전을 지키는 현장

우리나라의 안전은 지난 10년을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온상이다.

그러나 이곳 현장에서는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었



다. “안전 STOP제”가 바로 그것이다.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위험을 느꼈을 때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들은 그날 작업량이 경제

적인 부분으로 직결되어, 안전을 생략하는 것이 비일비재함을 볼 때 이곳 한승아파트 현장은 특별한 곳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변하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하도급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서로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여기고, 내 식구, 나의 가족처럼 여기는 이곳 사랑이 현장에서의 자율안전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망치와 함께 무재해 준공을 향해

현장 사무실의 모든 책상 위에는 용도 모를 망치들이 하나씩 놓여 있다. 무엇일까?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얼마 못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침 조회와 체조를 마친 후, 김수년 소장을 선두로 모든 직원이 지하 현장을 향한 지난 토목공사의 일이

다. 서포트 등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망치가 사용됐던 것이다. 이는 오늘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먹지 않았고, 준공 그날까지 망치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것의 처음



을 안전 확인으로 시작한 이곳에서는 모두가 안전관리자가 되어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모든 직원, 근로자가 함께 안전활동을 전개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무재해 현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안전은 점심에도 이루어지는데, 매일 전직원이 2개 조로 나뉘어 격일로 점심식사후 근로자들이 해이해질 수 있는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현장 근로자들은 직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건의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도록 보조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끝으로

한승아파트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와 신임이 있는 현장이다.

모든 민원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장 소장이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김수년 소장은 직접 민원인들과 만난다.

이는 민원인들에게 신뢰와 신임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이익은 낮아도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주)한승종합건설의 최철기 대표이사의 경영 마인드와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짓고 있는 태안 한승美메이드 아파트에서 무재해 준공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계속되는 2단지, 3단지에서도 무재해의 끈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